



성동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마무리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401억여원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는 9월 7일까지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7건을 포함한 상정 안건 20건을 의결하고, 당초 7,587억원에서 401억원 늘어난 7,988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 장터길 보차도 정비 등 안전도시 사업 112억 7,200만원 ▲ 스마트 주민편의시설 운영, 마을 마당 운동기구 정비 등 생활밀착형 사업 19억 8,700만원 ▲ 장애

인일자리지원, 마을버스 운영관리 등 일자리·경제산업 14억 5,800만원 ▲ 폐기물 처리, 청소장비 관리 등 환경·보건사업 17억 3,000만원 ▲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에 180억 8,00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교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 발전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으로 대응해 온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및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에 대비해 주민 생활불편사항 해결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안 심의 때 나온 장애인 관련 지원사업, 공원녹지 사업, 경로당 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회사에서 김현주 의장은 “제268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며 두가지를 당부 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이 적소·적기에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간이지만, 소외 받는 단 한 명의 이웃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과 주민, 집행부가 함께 뜻과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성동구의회, 엄경석·정교진 의원 5분 자유발언



엄경석 의원

「금남시장의 주차장과 대형 차량의 주차장 설치, 그리고 주차단속」

“8년전 단 한면의 주차 공간도 없던 금남시장은 기억여원의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을 받아 11면의 협소한 주차장을 만들어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금남시장의 열악한 주차장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곳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면 최소 60대의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 등록된 대형 차량은 약 2,000대가 넘지만 대형 주차장 공간은 28면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형차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겨우겨우 주차를 하고 귀가를 하면, 다음날 아침에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돼 아침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주차 단속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성동”이라는 슬로건처럼 대형차주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대형주차장의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한 상황과 이에 대한 의견」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서울특별시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두고 있지만, 교원들이 학교를 학생의 교육장소로만 인식하고 지역사회 기관으로의 인식은 부족하여 학생들의 안전 문제, 교육환경 악화 가능성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학교 운동장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보안 사고, 시설 사용에 따른 소음 및 학교장의 책임 소재 문제 등이 해소되어야 하고, 부서 간 또는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외부인의 교내 출입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인의 상주와 교내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교진 의원



제268회 임시회 폐회 후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성동구의회 의원들이 다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민생행보에 각오를 다졌습니다.